익산시, 공적 아동보호 체계 재정비

보호출산제·입양 체계 개편… 아동 맞춤형 보호 관리·자립 준비 청년에 주거·생활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시가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7월 개편된 '보호출산제'와 내년 7월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에 따라 익산시 아동 보호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안전한 출산부터 건강한 양육, 든든한 사회 진출 지원까지 한 아이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역량을 집결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위험에 노출된 영아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보호출산제를 이용해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조치 한 바 있다.

시는 이처럼 지역 상담 기관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24시간 전문 익명 상담 서비스 △긴급 상황 방문 지원 △맞춤형 지원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보호출산 신청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나 각종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부여를 통해 출생 신고를 지원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아동보호 전담 인력 2명을 추가로 확보해 공적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되며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됐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입양 아동의 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됐다.

이에 시는 공적 입양 체계에 대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가정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위탁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돕기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탁 가정에는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보호 대상 아동이 지역 안에서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자라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탁(입양) 가정에 인도된 아동과 보호 전담요원을 일대일로 연계한다. 개별적인 아동 맞춤형 보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4회 이상의 대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대상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개인 진로, 적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딤씨앗통장 후원자를 발굴해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자립 준비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는 매월 30만 원씩 60개월 동안 '익산사랑 자립정착금'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살림 일체형 임대아파트 지원 서비스' 등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청년시청 취업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보호출산제도 시행과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 공적보호 체계를 새로 정비한다"며 "보호 체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아동이 각 상황에 알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익산=이재춘 기자

"모현동 신시가지 상인회 설립해야"

박철원 익산시의원, 상인회 설립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지난 12일 모현동 신시가지 현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모현동 신시가지 상인회 설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철원 시의원을 비롯해 익산시 관계부서, 모현동 신시가지 상인들이 참석해 상인회의 설립 기준 및 요건, 지원 혜택, 타 지역 사례 등과 함께 추후 설립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철원 의원은 "최근 들어 상인회가 주축이 된 상권활성화 사업들의 성공 사례가 늘면서 모현동 신시가지 또한 상인회에 대한 갈망 또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상인회가 자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모현동 신시가지는 300개 이상 상가가 밀집한 대규모 상권구역으로 상인회 규모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그간 상인회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설립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현장에 참석한 상인들은 "평소 상인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지만 이렇다할 계기가 없어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인들이 다같이 뜻을 모아 상인회 설립은 물론 신시가지 상권 명소화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 각 지역 상권별에는 상인회가 설립돼 정부 차원의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모현동 신시가지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점가 지원에 앞서 상점가 상인회 설립에는 상인 간 협력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했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인회 설립 후에도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익산시에는 총 16개의 인가된 상인회가 운영 중이며, 상인회가 설립되면 가요제 지원, 문화행사 지원, 경영패키지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어청도 핫플뱃길 프로젝트' 우수과제 선정

여객선 활용한 섬관광 사업 고도화 추진… 새로운 여객 수요 창출 '기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협업한 '군산-어청도 핫플뱃길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의 2023년 6월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하나로 여객선 서비스 개선과 섬 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여객 수요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이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군산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관계 기관(한국해운조합), 전문가(한양여자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등과 함께 올해 2월부터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후 4월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인 어청도 낭만여행을 개최하고 더불어 행안부의 공공서비스디자인단 과제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어청도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2024년 4월 군산-어청도 항로 이용객이 2021년~2023년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으로 향후 신규 투어개발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연계 등 지속적인 여객선을 활용한 섬관광 사업을 고도화 시킬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무인양품, 팝업스토어 열어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오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무인양품 〈연결되는 시장〉 연계 임시매장(팝업스토어) 지원' 사업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한다.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MUJI)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자'라는 취지로 2020년도부터 영등포 타임스퀘어 매장에서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의 생산자, 소상공인, 창작자와 함께하는 '연결되는 시장'을 추진 중이다.

이번 임시매장에는 군산시 창업기업 총 11개사(식품 9개사, 비식품 2개사)가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은 군산시 특산품인 박대, 찰보리 등을 활용한 식품류부터 캐릭터 상품까지 방문객에게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운영 부스에서는 영수증 기획행사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협업은 지역 상품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군산시 지역브랜드의 유통망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와 사기업의 공동행사 개최는 판로개척을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이재춘 기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진행

지상 1층, 면적 346㎡ 규모… 전통 한옥식 목구조로 건립

익산시가 13일 정헌율 시장과 김경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청식은 풍물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기념사, 축사, 감사패 증정,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시설물 내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에 취약계층 300여 명을 초청해 다이로움 밥차에서 도시락을 증정했다.

또한, 뜨락 공연단의 공연과 개청식 기념 가요 열전이 진행돼 주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익산시는 기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했던 객사 관아 터 유적 발굴을 위해 이전 신축을 결정하고 지난해 5월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을 투입해 1년 5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동고도리 683번지 일원에 행정복지센터를 새롭게 건립했다. 면적 346㎡, 지상 1층 규모로 1층에는 민원실, 주민상담실, 회의실 등이 조성됐다.

특히 고도(古都)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한옥식 목구조로 조성돼 눈길을 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영등시립도서관, 연말까지 독서문화 프로그램 '풍성'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이 연말까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에는 △슬기로운 자연탐구 △어쨌든 미술은 재밌다 △우리를 위한 친환경 공예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쉽게 만나기 힘든 명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문학을 생활에 대입해보는 '인생문답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일러스트레이터 반지수, 법의학자 이호, 정신과 의사 윤홍균에 이어 마지막 강연자로 김가람 작가를 초청했다. 김가람 작가는 EBS 방송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연출하며 겪은 에피소드 등을 주제로 오는 15일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아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림책 연계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작가 초청 강연이 이뤄진다. 청소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도서관 꿈job(잡)기 프로그램'과 자녀의 양육을 돕는 '부모 교육 아카데미'도 마련했다.

노인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교육'과 '시니어 그림책 인문학' 등 생애 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가족 문화복합시설 '다우리' 12월부터 본격 운영

익산시는 모현동에 건립 중인 여성가족회관 '다우리'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우리'는 돌봄과 상담, 교육, 문화 등 보편적인 가족생활 복지를 통합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934㎡다. 다목적 가족 소통 공간과 프로그램실등 다양한 생활 문화 시설이 한 공간에 들어선다. 익산시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여성단체협의회,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5개 기관이 한 지붕 생활을 하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